

중국에서 특정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재호*·서운석**

- I. 서론
- II. 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분석모형과 가설설정
- IV. 특정 신뢰와 정부·당 신뢰와의 영향 분석
- V. 결론

본 연구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집단과 정부, 당에 대한 신뢰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특정집단의 소속원에 대한 신뢰가 곧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성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중국, 특정집단신뢰, 정부신뢰, 당에 대한 신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박사과정.

1. 서론

신뢰에 대한 관심은 이기적인 물질주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대응이며, 사회적 관심의 회복(Creed & Miles 1996, 16)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본질을 “가치 또는 재화의 권위적 배분”(Easton 1965)이라고 볼 때, 사회에서 연줄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공정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이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연줄을 동원하면 협조를 얻기가 쉽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소에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계를 통하면 쉽게 협조를 얻을 수 있다(박통희 2004, 24).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는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할수록 공식적인 일반 신뢰보다는 정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신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신뢰는 당사자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과 정부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절한 통제와 신뢰를 통하여 협력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현수 1999, 37). 만약 국민과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가로놓여 있다면 상호간 협력의 이익은 상실되고, 서로가 불이익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뿐 만 아니라 당장의 현실에서도 신뢰의 중요성은 즉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에서 투자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 등 사회자본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上野和彦 2005, 568).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에 대한 신뢰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일정 정도의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국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중국을 사례로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로 육성될 중국 엘리트 대학생들의 사고를 중심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중국의 장래에 관한 일단면을 함께 고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신뢰와 특정 신뢰의 개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21세기형 패러다임은 신뢰를 핵심 요소로 한다. 불신은 성과나 조직 효과성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 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야기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도 초래한다(나태준·최순영 2003, 1-2). 따라서 새로운 행정관리 이념으로 신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신뢰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를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다”(Mayer et al. 1995, 712). 신뢰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협동을 촉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 공급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집합행위의 문제를 감소시키며,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고, 공적권위에 순응하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박통희 2004, 33).

신뢰는 수백 년 동안 도덕론과 사회철학의 화두였으나, 사회과학에서 신뢰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Thomas 1998; 김용학·손재정 1998), 신뢰는 사회질서를 위한 하나의 토대 이상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신뢰에 대한 많은 견해를 바탕으로 여러 학파들이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의 수준을 확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신뢰는 심리학, 조직행동, 인사관리론, 마케팅,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정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뢰가 조직의 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성개념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Hosmer 1995). 즉 신뢰란 다른 개인, 집단, 조직의 행동이나 결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Barber 1983; Jennings 1971; Lewis and Weigert 1985), 파트너가 믿을 만한 가에 대한 신념(Mcallister 1995), 능력 있음(Mishra 1993), 성실하게 행동하려는 것(Robinson 1996), 파트너에 대한 믿음과 파트너의 지단관심사항에 대한 배려(Dirks 1999)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신뢰는 신뢰자의 신뢰성향, 피신뢰자의 특성(능력, 정직성, 일관성, 배려성 등), 관련 제도의 특성 그리고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Lewicki and Bunker 1996; Shapiro et al. 1992; Mcknight et al. 1998).

특히 신뢰는 피신뢰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신뢰, 즉 개인적 연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불특정 다수의 보통 사람에 대한 일반 신뢰이다(Uslander 1999; Yamagishi 1994; Levi 1998; Petit 1998; Brennan 1998). 이러한 신뢰는 분석수준에 따라 개인적 수준, 집단수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유지시키는 공동선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Misztal 1997). 최근에 신뢰는 개인적 수준에서

점차 사회수준으로 확장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점에 있어 신뢰라는 개념은 학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단 수준의 특정 신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선행연구

1) 한국에서 신뢰에 관한 연구

신뢰가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후쿠야마의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로 구분하면서부터이다(Fukuyama 1995). 후쿠야마는 신뢰의 수준이 국가발전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로 구분하였다. 고신뢰사회는 “공유된 규범에 기초한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태의 공동체로, 이런 사회에서는 이전의 도덕적 합의가 집단의 구성원에게 상호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집약적인 계약이나 법에 의해 규제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규정한다. 고신뢰사회의 예로는 일본, 독일, 미국을 들고 있는데 이들 사회는 풍요롭고 복잡한 시민사회의 매개를 통해서 가족회사로부터 대규모 기업발전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대로 저신뢰사회는 중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로서 이런 나라는 신뢰가 가족에 한정되고 따라서 기업이 가족에 한정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귀속적 준거를 토대로 한 강한 연계망 사회는 약한 연계망 사회에 비하여 사회신뢰가 낮다(Granovetter 1973). 즉 특정 신뢰보다는 일반 신뢰가 높은 사회가 더욱 발전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연구들은 Fukuyama의 한국사회를 저신뢰사회에 근거하여, 과연 어떤 특정 신뢰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통희·원숙연(2000)은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과의 동태적

역학에 관한 연구에서, 연줄은 신뢰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낮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연줄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감정적 선호, 의사소통의 빈도, 개방성을 매개로 연줄을 공유한 구성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인지적 일관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높이려는 동기는 연줄을 공유한 구성원의 특성을 높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추론을 끌어내고 있다. 박통희(2004)의 정, 가족주의와 대인간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 신뢰에 “정”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즉, 개인적 연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신뢰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 신뢰는 정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심익섭 외(2004)의 중국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직 내 신뢰로 대표되는 특정 신뢰와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석춘(2002)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연고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연고주의는 하나의 신뢰체계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신뢰가 적용되는 범위, 작용하는 조건에 따라 신뢰는 ‘사회자본’도 될 수 있고 ‘사회부채’도 될 수 있다(이재열 2002)는 반론도 있다. 이재열(2002)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에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낮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석춘·장미혜(2003)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족 및 개인 연결망의 활성화가 곧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실주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람에 대한 사적신뢰와 제도에 대한 공적신뢰가 공존 가능하다고 한다. 양종희(2003)는 싱가포르 경우를 예로 들면서 싱가포르에서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연결망에서 유래하는 사

회자본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 했고 대신 강력한 국가가 투명성, 정직함 등을 보장하여 국제적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신뢰수준은 낮다고 한다.

한국의 연고주의는 연령, 성별, 지역,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임태섭 1995),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에서 혈연, 지연 및 학연의 세 가지 요인이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고리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홍동식 1990).

이처럼 한국에서 연고관계를 중히 여기는 것은 Zucker(1986)가 말한 신뢰의 유형 중 특성 의존적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연고 관계적 특징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는 그것의 구축 대상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화권과는 달리 연고관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중국에서의 신뢰

한국의 신뢰 연구가 후쿠야마의 추론을 검증하는 방식이 많았던 것에 비해, 중국에서는 후쿠야마의 이런 추론에 대해 일종의 신문화결정론(新文化決定論)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논증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安然·王洛忠 2000). 즉 중국에서 현대적인 민영대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사와 현실 중의 각종 사회, 경제인수의 종합적 작용의 결과이지, 신뢰결여라는 단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정 사회, 경제 배경 하에 형성된 정치유교(政治儒敎)는 광의(廣義)의 유교문화가 아니며, 이런 기형적인 정치유교 영향으로 사회신뢰가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중국사회에 대한 신뢰연구는 인간관계,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아 왔고, 실제적으로도 사회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 내외의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인류학, 정치학 등의 일부 연구에서 마치 “관계(關係)”가 중국에만 특유 하는 현상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중국 사회자본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는데 있어 이미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회자본 이론과 측정도구를 가지고 중국의 신뢰현상을 특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張文宏 2003). 공동체와 신뢰 간의 관계에 있어 신뢰의 주요 작용은 공동체의 안정과 행동의 상대적 일치성, 공동체への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개인과 제도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사회자본의 양이 직접적으로 자원동원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신뢰범위가 한정되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는 비공식제도와 집단에 대한 응집력을 강화하나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무임승차, 부패,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책결정자는 신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공정책과 제도설계를 통해 신뢰수준의 저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공공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개성, 명확성, 절차성, 규칙성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조직력과 역량이 우월한 기득권 세력이 공공정책을 왜곡하여 공공이익을 특수이익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郭台輝 2004). 신뢰수준의 제고는 현재 중국의 전략적 국가정책이다. 신뢰제고 정책은 신뢰의 하락이 도시에서 더욱 현저하고, 도시주민이 정부정책에 이성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며, 정책의 효과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신뢰제고를 위한 정책은 우선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趙孟鷟·王思斌 2001)는 정책 제안들이 있다.

사회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이 클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크고, 더욱

많은 보수를 위하여 당정기관(党政機關)보다는 기업단위(企業單位)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로 추론하건데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보다는 도전적인 서부개발 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鄭結 2004). 중국의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신뢰유형에 따라서 농촌사회 구조의 변천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다. 신뢰유형의 변화는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되는 중국사회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鐘漲宝 外 2002).

중국의 가족기업(家族企業)과 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을 계획경제의 규제가 풀리면서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조직형식으로 보고 이러한 경향은 창업 초기 자금, 기술, 관리능력, 정보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 종족(宗族)의 연결망을 통해 다른 가족기업과 상호의존, 상호고용, 투·융자시스템, 상업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가족기업은 시장규모의 확대, 중국 경제시스템 전환에 맞추어 현대화된 기업(公衆上市公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정 신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비인격화된 관계(非人格化關係)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余向前·鄭慧 2003; 曹祥濤·郭熙保 2003; 周小虎 2002; 郭毅·朱熹 2002)고 한다.

위의 여러 연구들은 보면,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일반 신뢰보다는 특정 신뢰에 의해 사회와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 혈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도가 높은 반면 사회단체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와 같은 인간관계의 강한 연줄 편향성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구조도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연고에 의한 동질성을 고유하는 ‘우리 집단’ 또는 ‘내집단’ 성원들에게는 매우 개방적이지만, 연고를 달리하는 ‘남의집단’ 에게는 매우 폐쇄적이라는 의미

이다(이재열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학연, 지연, 혈연의 특정 신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만 밝혔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특정 신뢰가 정부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중국의 신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I. 분석 모형과 가설 설정

1. 분석모형의 설정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는 국가 전체로서의 규모에서나 운명공동체로서의 질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실적으로 양자간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여러 연구와 경험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해 왔으며, 국민 또한 정부의 여러 가지 주요 국가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즉, 국민과 정부간에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신뢰가 가져다주는 비용감소, 정부효율의 제고라는 과실을 놓치고 있었다(이현수 1999, 52). 이런 한계에 대해서 중국도 자유롭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신뢰의 결핍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라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지 않는다면 사회위기가 발생할 가능성과 신뢰수준이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戴木才 200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그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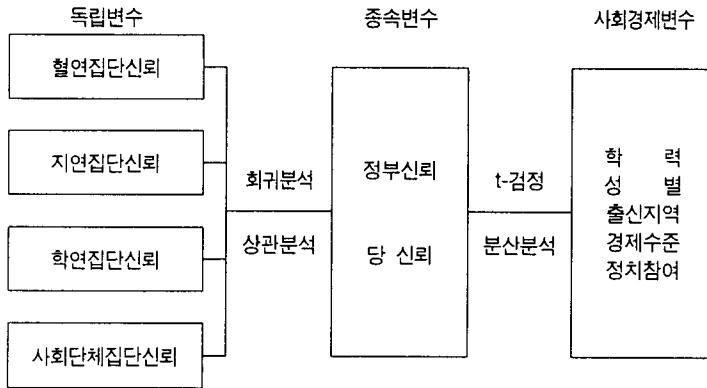
신뢰문제 연구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에서는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중국공산당장정(中國共產黨章程)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국가 및 사회생활에 있어 유일하게 영도권(領導權)을 영유하는 기관이며, 그 영도 범위는 사회생활(社會生活)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吳愛明 外 2004, 19). 중국에서의 신뢰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정부와 더불어 당에 대한 신뢰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정부나 사회신뢰에 비해 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국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절실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이고, 독립변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로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는 신뢰자가 정부와 당에 대해 느끼는 신뢰 정도를 의미하며, 특정 신뢰는 신뢰자가 특정한 연계를 맺고 있는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신뢰로 구체적으로는 가족 및 친척, 동향, 동문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 느끼는 신뢰 정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각 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주관적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묻는 방법을 택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중국인민대학, 북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방법을 사용했으며,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3개의 하위집단에서 각각 200부, 200부, 100부 등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는 비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했다.¹⁾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5년 3월 10일에서 18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서 이

〈그림 1〉 분석 모형



루어졌다.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1.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 다중상관분석, 분산분석, t-검정 등을 활용하였다.

신뢰의 본질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과 관계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 표본을 확보해야 함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한정된 집단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에 머물렀다. 이러한 사실들은 검증 통계치의 유의미성에 한계를 갖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의 유의수준을 $P < 0.05$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구성과 조작화는 Cummings and Bromiley(1996)가 개발한 OTI(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모형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부 보완하여 사용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은 각 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명제에 대해 동의 정도

1) 층화표본추출 방법은 하위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층화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과 그렇지 않은 비비례층화추출법(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으로 구분된다(김은정 외 2002, 130).

를 10점 등간척도(Scale)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서로 반대되는 수식어와 중립점을 사용하여 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각 1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주게 했으며, 이것을 다시 각 집단별로 점수화하였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되는 사회경제변수로 학력, 성별, 출신지역, 경제수준, 정치참여 등 5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변수의 측정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집단의 측정대상을 상호 배타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하여 각 하위집단의 신뢰수준을 측정하였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 각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의 측정 설문문항과 사회경제변수의 집단간 배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설문문항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척도	구분	변수명	집단	척도
종속 변수	정부신뢰	믿을만하다. 주어진 의무를 다 한다. 책임의식이 강하다. 일을 맡길 만하다. 거짓 없이 대한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기당할 염려가 없다. 약속한 일을 지킨다.	10점 등간 척도	사회 경제 변수	학력	학부생	명목 척도
	당신뢰					석사생	
						박사생	
독립 변수	혈연집단신뢰				성별	남	
	여						
	지연집단신뢰				출신 지역	도	
						시	
	학연집단신뢰				경제 수준	농	
촌							
사회단체신뢰	정치 참여				상		
					중		
	하						
	당						
	원						
	비당원						

2. 연구가설의 설정

사회경제변수와 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

위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용이하게 사회적 부와 명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성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정치행동의 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신뢰가 더 낮다고 하며, 여성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이현수 1999, 41). 지역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도시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보다 비판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배병룡·이시원 1988). 연령과 신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더욱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며, 이상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정부 및 사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Hochreigh and Rotter 1970)는 견해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사회경제변수로 학력, 성별, 출신지역, 경제수준을 선정하였으며, 이 외에 중국 특색을 고려하여 정치참여 여부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 H1 : 학력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2 : 성별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 : 출신지역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 : 경제수준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5 : 정치참여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후쿠야마(1995)는 중국과 같이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문제해결에 주로 가족을 동원하고 이러한 경향은 다시 연고주의로 발전한다고 한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특정한 개인적 연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족주의적 유교주의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강

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신뢰는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신뢰의 강화는 국민과 정부와의 사이에 보편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의 추론을 중심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6 :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지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Putnam(1994)은 사회자본의 연구에서 한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지역에서의 자발적 조직의 존재와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자발적 조직의 가입과 참여, 자발적 조직의 네트워크 성격, 자발적 조직에서 보내는 시간 등의 측면에서 사회단체 활동이 신뢰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9 : 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검증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IV. 특정 신뢰와 정부·당 신뢰와의 영향 분석

1.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수준 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은 中國人民大學, 北京大學에 재학 중인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이다. 수집된 설문지 중 유효설문지의 회수빈도(설문지 회수율)를 보면 학부생 157부(78.5%), 석사생 175부(87.5%), 박사생 87부(87%)로 총 414부(82.8%)의 유효설문지가 수집되었다.²⁾

수집된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집단 구성

변수	집단	빈도	비율	누적비율
학력	학부생	152	36.7	36.7
	석사생	175	42.3	79.0
	박사생	87	21.0	100.0
성별	남	187	45.2	45.2
	여	227	54.8	100.0
출신지역	도시	257	62.1	62.1
	농촌	157	37.9	100.0
경제수준	상	20	4.8	4.8
	중	311	75.1	80.0
	하	83	20.0	100.0
정치참여	당원	197	47.6	47.6
	비당원	217	52.4	100.0

2) 중국인민대학에서 327부(78.9%), 북경대학에서 87부(21.1%)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사회경제변수의 집단간 구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변수 중에서 성별, 출신지역, 정치참여 변수는 모두 2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t-검정은 단일 모집단의 특성이나 두 모집단 특성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용되지만, 단일 모집단의 상이한 두 상황(또는 두 하위 집단)간에 차이검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법이다(김호정 1996, 210). 성별, 출신지역, 정치참여에 따른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수준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정부/당 신뢰와 사회경제변수별 집단간 t-검정 분석 결과

변수	집단	정부신뢰				당신뢰			
		평 균	표준편차	T	Sig.	평 균	표준편차	T	Sig.
성별	남	5.46	2.07	-3.11	0.00	5.83	2.37	-2.53	0.01
	여	6.07	1.85			6.40	2.14		
출신 지역	도 시	5.80	1.97	0.07	0.94	6.18	2.25	0.35	0.72
	농 촌	5.79	1.99			6.10	2.29		
정치 참여	당 원	5.26	2.33	-1.38	0.16	6.45	2.22	2.65	0.00
	비당원	5.89	1.94			5.87	2.27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사회경제변수별 집단간 t-검정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최고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46점이고 여자는 6.07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부신뢰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신지역, 정치참여에 따른 정부신뢰 수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우선 정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통계적인 차이가 보인다. 당에 대한 신뢰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뢰수준이 더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당에 대한 신뢰에서는 성별 이외에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서 신뢰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원의 경우에는 6.45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서 비당원인 경우에는 5.87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당원이 비당원인 경우에 비해서 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당(入黨)을 위한 일련의 사전교육과 당원으로써 가지는 물질적·정신적 혜택, 당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에의 참석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정치참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보다는 당이 더욱 중요한 권력기구로 인식된다는 추론과 중국의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공산당원의 현실 인식을 추정할 수 있다. 출신지역에 따른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변수 중에서 학력, 경제수준 변수는 모두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에는 F-검정을 사용한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수준과 사회경제변수별 집단간 F-검정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정부/당 신뢰와 사회경제변수별 집단간 F-검정 분석 결과

변수	집단	정부신뢰				당신뢰			
		평 균	표준편차	F	Sig.	평 균	표준편차	F	Sig.
학력	학부생	5.93	2.11	1.02	0.35	6.39	2.27	1.70	0.18
	석사생	5.80	1.86			6.08	2.22		
	박사생	5.55	1.96			5.85	2.32		
경제수준	상	5.26	2.33	1.60	0.20	5.78	2.72	0.57	0.56
	중	5.89	1.94			6.21	2.20		
	하	5.57	2.00			6.00	2.40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른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분석의 대상이 모두 학생이라는 제한 속에서 특별히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 조건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분석대상을 일반 사회인으로 확대 조사한다면 이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정치참여에 따라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경향이지만 정치참여에 따른 집단간 신뢰수준의 차이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중국에서만 해당하는 특수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학력, 출신지역, 경제수준에 따른 신뢰 수준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가설의 채택 및 기각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H1(학력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된다.

가설 H2(성별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가설 H3(출신지역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된다.

가설 H4(경제수준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된다.

가설 H5(정치참여에 따라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정치참여에 따른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채택된다.

2.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와 정부·당에 대한 신뢰간의 영향관계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최고 10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5.79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당에 대한 신뢰수준은 6.15 수준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과 정부가 별개의 권력으로 인식된다고 보는 당에서 항시적으로 진행되는 홍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는 당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로써 정부가 역할 하지만 홍보에 있어서는 별개의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를 동원한 당에 대한 홍보는 항시적이고 대량적인 데 반해 정부의 홍보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정부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신뢰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에 비해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은 9.30으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가족주의적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연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은 6.83,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은 7.39 수준으로 나왔다. 동양적 가족중심의 유교문화에 대비해서 고려한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는 5.62로 나타나고 있다.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기대 수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과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예상 외로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사회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과 더불어 이외는 가족중심 유교문화의 영향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지연집단에 대한 신뢰수준도 기대 밖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혈연은 가장 중요한 끈이며, 믿음의 상징이다. 실제 본 연구자들이 수년간 중국인들을 직접 대면한 결과를 보더라도 혈연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였다. 여기서 혈연이란 단순히 DNA로 단순 결합된 생물학적 혈연을 포함하여, 비록 생물학

적으로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인연을 맺으면 혈연이 된다. 삼국지의 “도원결의 형제”에서 보듯, 단순 혈연외에도 의형제 관계를 통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의부관계를 맺어 혈연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낮설지 않다. 현대 중국에서도 성공하려면 좋은 혈연관계를 맺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즉,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수준 간의 격차가 작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강력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단체에 대한 미약한 신뢰수준도 같이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다. 후쿠야마의 추론이 중국사회에서 일정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원인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정부와 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의 시민사회의 저발전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같은 가족주의적 유교문화의 외연적 확대라고 생각한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지연집단에 대한 신뢰를 능가하는 것은 분석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면 양자 간의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와 각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정부/당 신뢰 및 특정집단신뢰 수준

변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정 부 신 뢰	5.79	1.98
	당 신 뢰	6.15	2.26
독립변수	혈연집단신뢰	9.30	0.89
	지연집단신뢰	6.83	1.57
	학연집단신뢰	7.39	1.38
	사회단체신뢰	5.62	1.63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라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4개의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 이상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기법으로 중상관분석(multiple correlation analysis)이 있다.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정부/당 신뢰와 특정집단신뢰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부신뢰	당 신 뢰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	사회단체
정부신뢰	1.00					
당 신 뢰	0.86	1.00				
혈연집단	0.26	0.26	1.00			
지연집단	0.37	0.27	0.35	1.00		
학연집단	0.38	0.32	0.39	0.58	1.00	
사회단체	0.59	0.45	0.14	0.50	0.47	1.00

상관분석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³⁾는 모두 유의수준 P(0.01)을 만족하고 있다. 각 변수의 다른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모두 정(+)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간에는 모두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 간에는 상관계수가 0.86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당 간의 현실적 관계에 근거하면 정상적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부신뢰와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다소 있는 정도이고, 정부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 간에는 상관계수가 0.59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신뢰를 포함하

3) 상관계수의 종류는 크게 등간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로 구분된다(안광호·임병훈 2004, 209).

는 일반 신뢰 형성에 있어 사회단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당에 대한 신뢰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 간에는 정부 신뢰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인다. 이런 분석 결과는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이 기각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4개의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이 정부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설명이 가능하다. 정부신뢰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 간, 당에 대한 신뢰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정부/당 신뢰와 특정집단신뢰 간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모델	변 수	B	Beta	T	Sig.	R.S.	Adj.R.S.	D.W.
정부 신뢰	Constant	-1.98		-2.40	0.01	0.38	0.37	1.90
	혈연집단	0.36	0.16	3.85	.000			
	지연집단	1.45E-02	0.01	0.22	0.82			
	학연집단	8.12E-02	0.05	1.10	0.26			
	사회단체집단	0.64	0.53	11.40	0.00			
당 신뢰	Constant	-2.12		-2.05	0.04	0.25	0.24	1.83
	혈연집단	0.49	0.19	4.07	0.00			
	지연집단	-6.17E-02	-0.04	-0.76	0.44			
	학연집단	0.11	0.06	1.21	0.22			
	사회단체집단	0.58	0.42	8.16	0.00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 Square)를 보면 0.38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3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빈-왓슨(Durbin-Watson)통계량은 자기상관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으로 정부신뢰의 회귀모형은 1.90으로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⁴⁾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상수,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이며, 사회단

체에 대한 신뢰가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연집단과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즉,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 Square)는 0.25로 종속변수에 관한 변동의 25% 정도를 이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자동상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은 1.83으로 이 회귀모형에서도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상수,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로 정부신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신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당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의 회귀계수가 모두 정(+)으로 나타나는 것도 정부신뢰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당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

4) 더빈-왓슨값이 2에 가까우면 각 관측치의 분산들 간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H6(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

가설 H7(지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

가설 H8(학연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

가설 H9(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집단과 정부, 당에 대한 신뢰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저신뢰사회라는 가정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혈연집단, 지연집단, 학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 및 당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특정

집단의 소속원에 대한 신뢰가 곧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성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신뢰가 강하면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사회자본 형성에 자발적 조직의 존재와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중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일반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중국의 경험적 세계에서는 오히려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변수의 영향은 성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 출신지역, 경제수준은 신뢰수준에 대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일부 학자들의 동양에 있어서의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일반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 즉,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대해서만 신뢰하고 특정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취약하다는 추론과는 달리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당에 대한 신뢰와도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은 현재 정부신뢰를 포함한 일반 신뢰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경향이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신뢰를 포함하여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형성은 중국에게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上野和彦 2005, 568)는 부분적인 경제적 이점 말고도 다민족 중심의 현대적 국민국가 형성에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필요성에서 여러 정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할 때,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를 활용한 정부신뢰 제고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 하다. 특히 가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실체이며, 조직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의 복합체이므로, 이런 동양 공통의 가족문화를 동북아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鄭賢淑 2005)는 주장도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가 일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나,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나태준·최순영. 2003. “공공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 박통희. 2004. “정,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 한국 중앙정부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38(6).
- 박통희·원숙연. 2000.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 : 사회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2).
- 배병룡·이시원. 1988.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보』 22(2).
- 산업자원부. 2005. “한국 세계 수출 12위, 수입 13위.” 『무역유통동향정보』 (2005.04.15).
- 심익섭·이재호·서운석. 2004. “중국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4).

- 양종희. 2003. "싱가포르의 자본주의적 발전, 유교문화전통 만들기과 사회자본." 경기문화재단·한국사회학회 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효 문화와 한·중·일·싱가포르의 문화비교』. 수원: 경기문화재단·한국사회학회.
- 유석춘.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서울: 자유기업원.
- 유석춘·장미혜. 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 외 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 . 2002. "신뢰와 사회적 자본 : 개념적 정리."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성찰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 이헌수. 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 임태섭. 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홍동식. 1990.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 Brennan, G. 1998. "Democratic Trust : A Rational Choice Theory View." Valerie B. & Margret L., ed.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Creed, W. E. Douglas., & R. E. Miles. 1996. "A Conceptual Framework Linking Organizational Forms, Managerial Philosophies and the Opportunity Costs of Controls." Roderick M. Kramer and Tom R.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CA: SAGE.
- Cummings, L. L., and P. Bromiley. 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Roderick M. Kramer and Tom R.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CA: SAGE.
- Easton, D.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NJ.: Prentice Hall.
- Fukuyama, F.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Hochreigh, D. J. and J. B. Rotter. 1970. "Have college student become less tru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 Levi, M. 1998. "A State of Trust." Valerie B. & Margret L., eds. *Trust and*

-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Lewicki, R. L. and B. B. Bunker. 1996. "Developing and Maintaining Trust," Roderick M. K. & Tom R.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CA: SAGE.
- Mayer, R. C., Davis, J. H., and F. 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 Mcknight, D. H., Cummings, L. L., and N. L. Chervany. 1998. "Initial Trust Form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 Petit, P. 1998. "Republican Theory and Political Theory," Valerie B. & Margret L.,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Putnam, R.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piro, D. L., Sheppard, B. H., and L. Cheraskin. 1992. "Business on a Handshake." *The Negotiation Journal* October.
- Uslaner, E. M.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magishi, T. and M.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Motivation and Emotion* 18.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940-1960,"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8.

鄭賢淑. 2005. "東北亞家族論-形成共同體的基礎." 中國北京城市學院外. 『東北亞發展論壇』.

- 安然·王洛忠. 2000. "新名詞下的旧觀點：評福山的社會資本理論." 『學術界』05.
- 曹祥濤·郭熙保. 2003. "社會資本與我國家族企業的發展." 『武漢大學學報』02.
- 戴木才. 2003. "以德治國與中國社會資本的重建." 『倫理學研究』01.
- 郭毅·朱熹. 2002. "企業家的社會資本：對企業家研究的深化." 『外國經濟與管理』01.
- 郭台輝. 2004. "社會資本：公共政策過程的變量." 『理論與改革』03.
- 吳愛明·朱國斌·林震. 2004. 『當代中國政府與政治』.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 余向前·鄭慧. 2003. "社會資本與中國家族企業生命的擴展." 『溫州師範學院學報』04.
- 趙孟營·王思斌. 2001. "走向善治與重建社會資本：中國城市社區建設目標模式的理論分析." 『江蘇社會科學』04.
- 張文宏. 2003. "社會資本：理論爭辯與經驗研究." 『社會學研究』04.

- 鄭 結, 2004, “家庭社會經濟地位與大學生就業：一个社會資本的視角,”『北京師範大學學報』 03.
- 鐘漲宝·黃甲寅·萬江紅, 2002, “社會資本理論對農村社會結構變遷的解釋功能,”『華中農業大學學報』 01.
- 周小虎, 2002, “企業家社會資本及其對企業績效的作用,”『安徽師範大學學報』 01.
- 上野和彦, 2005, “在華外資企業的投資地選擇,” 中國北京城市學院外,『東北亞發展論壇』.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Trust in Specific Group to Government Trust and The Communists Trust in China

LEE Jae Ho

Research Fellow,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SUH Woon Suk

Ph.D i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This paper surveys for research which examine empirically what kind of relationship exists between government trust, the communists trust and the trust in specific group in China. Especially, We focus on how the trust in specific group affects government trust and the communists trust by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earch reveals that :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and the communists trust is lower than that of the trust in blood relationship group. But it doesn't mean that the trust in specific group has negative influence on government trust and the communists trust. Conversely, the trust in blood relationship group affects government trust and the communists trust positively. From these results, We deduce that the trust in a personnel of a specific group would be act as the factor to consolidate the trust in government and the communists.

Key words : China, The Trust in Specific Group, Government Trust,
The Communists Trust